국제비교한국학회(I.A.C.K.S.)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mparative Korean Studies

이소희(회장)

(133-793)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여자대학 영어학과

Tel: (02)2290-2288

Mobile: 010-2288-5143

E-mail: shlee@hywoman.ac.kr

박진임(총무이사)

(450-701)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111

평택대학교 미국학과

Tel: (031)659-8314

Mobile: 010-2083-6754

E-mail: jinimp@ptu.ac.kr

학회 홈페이지: http://www.iacks.org 총무간사: 조인숙(016-274-1465/ourfate@hanmail.net)

회비 납부계좌: 신한은행 110-291-157770 (예금주: 최유진)

국제비교한국학회 회원 여러분께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활기찬 새 학기를 맞이하여 우리 학회도 8월 31일로 제11대 임원진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9월 1일부터 제12대 임원진의 임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리 학회는 1991년 12월 29일 독일 베를린에서 6명의 참가자가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450여명의 회원을 거느린 대규모 국제적인 학회로 발전하였습니다. 지난 6월 11일(토) 창립 20주년 기념 국내학술대회 개최 이후 진행된 학회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립 20주년 기념 특집 학술지 19권 2호 발간

8월 31일자로 발간된 학술지 Comparative Korean Studies 19권 2호는 특별히 <창립 20주년 기념 특집호>로 기획되었으며 지난 4월 21일(목)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3편으로 <기획특집 1>이, 또 지난 6월 11일(토) 서강대학교에서 개최된 국내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7편으로 <기획특집 2>가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1991년 12월 29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창립총회 이후 지난 20년간의 학회 활동을 기록한 연혁과 제11대에 이르기까지 역대 회장님들의 이름과 소속, 임기 등을 모두 게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호에는 최근 북한사회에 나타난 주요 사회경제적 변화 중 하나인 개인경작지 농사의 증가 현상을 분석한 연구논문도 게재되었습니다. 이번 호에 게재된 총 11편

의 논문은 영어 논문 3편, 한국어 논문 8편입니다. 귀중한 옥고를 보내주신 회원님 들과 논문을 게재해 주신 필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19권 2호 게재논문의 영문 요약 수정을 위해서 박소라 상임 편집이사님과 정혜연 교수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2) 2011년 등재학술지 계속평가 신청

우리 학회는 지난 8월 17일 2011년 등재학술지 계속평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김종 욱 편집위원장님의 주관 아래 김수희 편집이사 등 편집위원회가 진행한 등재학술지 계속평가 신청을 위해서 1995년 12월 30일 학술지 창간 이후 발간된 30권 전권에 게재된 모든 논문들을 PDF 파일로 변환하여 학회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새로운 평가 항목으로 KCI 인용지수 항목(배점 5점)이 첨가되었습니다. 등재학술지 계속평가 결과는 오는 12월 말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2011년 등재학술지 계속평가 신청 작업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김종욱 편집위원장님과 김수희 편집이사님 등 편집위원회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009년 1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11대 임원진의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 안 저와 함께 학회 활동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부회장님 이하 모든 이사님들께 감 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2년여 동안 4회에 걸친 국제/국내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 표해 주신 회원님들과 5회에 걸쳐 발간된 학술지에 다양한 논문을 게재해 주신 여 러 필자 회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애정어린 관심 덕 분에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우리 학회가 매우 활발한 학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곧 임기를 시작하는 제12대 김승희 회장님 이하 새로운 임원진에게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1년 8월 31일

국제비교한국학회장 이 소

